

#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최선'

# 전주시, 독서문화 확산 위해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

### '전주형 중소기업 특화분야 지원사업' 참여 기업 31일까지 모집

전주시가 지역의 중소기업에 기술개발부터 제품판매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0년 전주형 중소기업 특화분야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전주지역의 △탄소제품 △식품 △공예품 △자동차부품 △전자전자부품 △화학제품 등 6개 특화분야의 50인 이하 중소기업이며, 총 사업비 3억원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여건에 맞는 수요분석을 진행하고 기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 컨설팅과 특화분야 제품 제작, 생산성 향상, 디자인 개선, 클라우드 펀딩, 홍보

물 제작, 온라인 마케팅, 초고속 사업화 패키지, 기업 역량강화 등 9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시는 특히 융합을 통한 우수제품 발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중소기업 간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MIT(이)업종 융합산업 포럼'과 특화분야기업 제품박람회도 개최해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과 판로 개척 등을 지원키로 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onju.go.kr)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홈페이지(www.kctech.re.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이메일(ksp668@kctech.re.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기업활성화본부 탄소비즈니스센터(063-219-3584)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독서동아리 길잡이 파견 · 전주독서대전 참여 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

책 읽기 좋은 도서관 도시 전주시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동아리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독서동아리의 토론도서와 공간을 지원하고 독서전문가를 파견해 원활한 독서토론을 돕는 등 시민이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독서동아리를 대상으로 △독서동아리 길잡이 파견 △책 꾸러미 대출 서비스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공론과 대화 시민대토론회 운영 △2020 전주독서대전 참여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먼저 독서동아리 길잡이 파견의 경우 원활한 독서토론을 위한 노하우 전수를 위해 독서전문가를 동아리에 파견하는 사업으로 기존 독서동아리에는 3회, 신규 독서동아리에는 최대 5회까지 지원한다.

또 동아리가 원하는 토론도서를 가까운 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책 꾸러미' 대출 서비스를 운영해 회원들이 도서를 구매하지 않고도 독서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에서 운영 중인 12개의 도서관과 다양한 작은도서관을 통해



책 읽기 좋은 도서관 도시 전주시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동아리 활성화에 나선다.

독서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키로 했다.

시는 독서동아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독서캠프와 문학기행, 블로그 아카데미 교육 등도 진행하며, 특히 올해에는 독서동아리와 일반시민이 책을 읽고 토론을 진행하는 '공론과 대화'라는 시민 대토론회도 6회에 걸쳐 새롭게 추진한다.

이외에도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2020 전주독서대전'과 연

계해 △100인 100책 독서토론 △청소년 비경쟁 독서토론 △독서동아리 마당 등 참여의 장을 제공하는 한편 도서관에서 직접 운영해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독서동아리도 운영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독서동아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주시에 등록된 독서동아리에 대한 전주조사도 오는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보건소,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추진

### 필수 예방접종 항목 초등학교 4종 · 중학생 3종

전주시가 집단감염에 취약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필수 예방접종 여부를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는 학생들의 면역력을 높이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육부의 초·중학교 입학생 정보와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

종 정보를 연계해 예방접종 여부를 학교장이 확인함으로써 미접종자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필수 예방접종 항목은 초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소아마비(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JE) 등 4종이며 중학교 입학생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Tdap 또는 Td) △사립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HPV) △일본뇌염(JE) 등 3

종이다.

초·중학생 입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평화보건지소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단,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전산등록이 누락됐거나 예방접종 금기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되며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원색명화마을 텃밭 분양

전주시가 생활 속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텃밭을 분양한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전주시도시농업연구회가 색장동 소재 원색명화마을에서 텃밭을 운영할 시민을 31일까지 선착순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시민들에게 분양할 원색명화마을의 도시텃밭은 1개좌당 33㎡(10평)로 임차료는 5만원이며 연말까지 운영한다.

시는 총 30세대에게 텃밭을 분양할 예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 텃밭을 개장한다. 또 도시농업 연구회원들은 작물재배에 경험이 없는 초보자를 위해 도시농업 교육도 2회에 걸쳐 제공키로 했다.

/김윤상 기자

## 완산구선관위, 신체거동 불편자 거소투표신고 접수안내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성실)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합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상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

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격리 중인 유권자도 거소투표 신고기간에 신고하고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과 신고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2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신고 대상 선거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방문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안정된 헌혈 수급 위해 착한 헌혈운동 실시

### 전주시 직원 · 시민 대상 16일 전주시청 · 20일 덕진구청 · 23일 완산구청서 실시

전주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불안정한 혈액 수급을 해소하기 위해 착한 헌혈운동을 펼친다.

시 보건소는 코로나19로 인해 헌혈자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헌혈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한적십자 전북혈액원과 함께 16일 전주시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착한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단체헌혈의 취소와 학교의 개학연기 등으로 헌혈 참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혈액 수급 위기 '관심' 단계에 있는 상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혈액 재고보유량이 3일분 미만인 '주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우려도 나온다.

안정된 헌혈수급이 절실한 상황에서 시는 이날 시작으로 오는 20일에는 덕진구청, 23일의 경우 완산구

청 청사 앞에서 각각 오전 9시4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사랑의 헌혈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착한 헌혈운동 확산을 위해 전주시 공무원들이 헌혈봉사 동호회 '혈기왕성'을 창단하고 활동 중이다. 30여명으로 구성된 혈기왕성은 지난 7일 창단식을 갖고 지역헌혈센터를 방문해 헌혈을 참가하고 헌혈 동참 거리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헌혈과 캠페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을 원하는 시민들은 연중 △헌혈의집 고사동센터(완산구 전주객사5길 46) △헌혈의집 효자센터(완산구 용머리로 57) △헌혈의집 덕진센터(덕진구 기린대로 470) △헌혈의집 전북대센터(덕진구 백제대로567, 전북대내) △전북혈액원(덕진구 혁신로

463) 등 5개 헌혈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헌혈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헌혈을 위해 전날 금주와 과로를 피하고 4시간 이상 숙면을 취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헌혈 장소로 방문하면 된다. 헌혈 참여자에게는 △혈액검사 △혈압체크 △빈혈검사 △간기능 검사 △B·C형 간염검사 △매독항체 검사 △에이즈검사 등 다양한 건강검진으로 자신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헌혈증과 기념품 등 여러 혜택도 제공한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혈액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전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헌혈문화가 더욱 확산돼 따뜻한 생명나눔 실천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